



단결과 연대로 책임지는 경주지부!

경주지부 14기 23호

발행 :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지부장 정진홍 전화 : 054-748-3223 팩스 : 773-9270 인터넷 : <http://gj.kmwu.kr> 발행일 : 2026.06.26(금)

화신지회 설립, 금속노조 깃발 아래 첫걸음

13명 전원 찬성으로 지회 규칙 제정 · 초대 집행부 선출



금속노조 경주지부는 2026년 6월 25일(목) 오전 8시 20분 화신 언하공장 사내 지하 교육장에서 화신지회 설립 총회를 진행했다. 총회에 앞서 오전 7시부터 경주지부 집행위원과 지회 교섭위원들은 출근 선전전을 진행하며 화신 노동자들에게 금속노조 가입과 민주노조 건설의 의미를 알렸다.

화신은 영천지역 언하공장과 봉동공장, 기술연구소, 화신하이테크 등을 두고 있다. 생산 공정은 현대기아 전 차종 부품과 전기차 배터리팩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노총이 다수노조인 사업장이다.

화신지회 설립은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의식과 초동주체들의 상담·준비 과정을 통해 시작됐다. 현장에서는 부당 배치와 전보, 비민주적인 조합 운영, 조·반장 중심의 압박, 임금·단체협약 교섭 과정에 조합원이 참

여하기 어려운 구조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에, 초동주체들은 주간연속2교대제 실현, 노동자 권리 쟁취, 민주노조 건설을 주요 의제로 확인했고, 지난 10월 30일 금속노조 경주지부와 첫 상담을 시작으로 총 17차례 상담을 진행하며 현장의 요구와 조직화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상담 과정에서는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에 대한 이해, 복수노조 제도, 부당노동행위 대응, 기업노조와 산별노조의 차이를 함께 짚었다. 또한 쟁의행위 전술과 현장 점검, 간부의 자세와 역할, 조합가입 대상과 조직화 방향도 함께 논의했다.

이날 총회는 노동의례를 시작으로 지부집행위와 지역사업장 소개, 지부장 대회사, 설립 준비 경과보고 순으로 진행했다. 이어 최익선 경주지부 미조직국장을 임시의장으로 선출하고, 성원보고와 서기·감표위원 지명 뒤 안건 심의에 들어갔다.

총회에서는 지회 규칙 제정 건과 지회 임원 선출 건을 안건으로 다뤘다. 지회 규칙 제정 건은 총원 13명, 재적 13명, 투표인원 13명, 찬성 13명으로 확정했다. 지회 임원 선출 건도 총원 13명, 재적 13명, 투표인원 13명, 찬성 13명으로 확정했다.

초대 지회장에는 김판승 조합원이 선출됐으며, 수석부지회장 장종운, 부지회장 김재운, 사무장 윤효원 조합원이 함께 집행을 맡게 됐다. 김판승 초대 화신지회장은 당선 인사에서 “화신지회 조합원들의 믿음에 감사하며, 반드시 결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정진홍 경주지부장은 대회사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실망이 아니라 앞으로 더 열심히 조직하는 일이라며, 금속노조 조합원이 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고 노동조합은 법적으로 보호받는다”고 밝혔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교섭 결과를 지도부가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고 조합원 총회를 거쳐 확정하는 조직이라며, 이것이 금속노조가 현장에서 조합원 권리를 지키는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화신지회가 더 많은 조합원을 조직하고 현장의 문제를 함께 바꿔 나간다면 길은 열릴 것이라며, 경주지부도 화신지회를 끝까지 지키고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화신지회 설립은 화신 노동자들이 스스로 조합원이 주인 되는 민주노조를 세우고 현장을 바꾸기 위한 첫걸음이다. 지회는 주간연속 2교대제 실현, 임금인상, 투명한 조합비 운영, 조합원 권리 회복을 주요 요구로 삼고 현장 조직을 넓혀갈 계획이다.

금속노조 경주지부는 화신지회가 두려움 없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함께할 것이다. 화신 노동자들께서도 현장의 불합리한 문제를 지회와 함께 나누고, 조합원이 주인 되는 민주노조를 키워가는 길에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